

“나는 합격한다”



황 승 화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 2019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렬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9년도 5급 공채 일반 행정직렬에 합격한 황승화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방식은 각자마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용으로 가볍게 읽어 주시고, 시도해 보실 부분들은 메모해 두었다가 한 번 적용해보는 정도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합격수기가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II. 기간별 공부방법

1. 2017년 3월 ~ 2018년 2월

처음 시험에 진입한 저는 2차 과목을 인터넷강의로 들은 후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3~6월은 4과목(행정법,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예비순환, 7~10월에는 동일한 4과목 1순환, 11~12월에는 행정법과 경제학 2순환을 수강했습니다. 5월에는 행정학 예비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1차 언어논리를 대비하기 위해 논리특강 인터넷강의를 수강하고 공부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1차공부에 치중했습니다. 헌법 인터넷 강의를 듣고 복습했으며, 학교 고

시반에서 함께 PSAT스터디를 만들어 1월 중반까지는 기출문제를 풀고, 그 후에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구하여 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첫째, 2차 과목 강의를 들을 때 그 과목 복습하기에도 벅찬 나머지 다른 과목을 신경 쓰지 못한 점입니다. 저는 복습을 꼼꼼히 오래 하는 타입이라 시간적으로 다른 과목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과목을 몇 달 후에 다시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내용을 잊어버리기 마련이었습니다. 둘째는 공부 양을 가늠하지 못한 점입니다. 특히 이는 1차 공부에 해당되었습니다. 헌법 강의와 복습 양을 과소평가하여 1월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그때 PSAT 공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헌법과 PSAT을 공부하는데 벅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차 시험에서는 PSAT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1학기에 복학하였고, 어떻게 1년을 공부해야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시공부를 주로 하는 학과가 아니어서 주변에 행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 조언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9월에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서 조언을 구하고 수험생활을 공감할 수 있는 선배들을 만난 것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2018년 7월 ~ 2019년 6월

1학기에 복학하면서 공부계획을 세워놓고 공부할 마음을 다잡은 저는, 7월부터 제가 부족했던 자료해석 점수부터 높이고자 했습니다. 7월 중반까지 자료해석 강의를 듣고 이론정리를 한 뒤, 9월까지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기출을 풀며 스스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새로운 문제를 접해볼 수 있는 학원 모의고사도 4회 정도 풀면서 제 실력을 확인해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2차 과목과 관련해서는 정치학 1순환(7월), 경제학 2순환(8~9월), 행정학 3순환(10월), 정보체계론(10월말), 정치학 1순환(도란동이, 11월), 행정법 1순환 일부(7월, 11월)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렇게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 따라가기보다 저에게 필요한 강의부터 골라 활용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철저히 공부하고, 강의들은 내용을 제대로 깔끔히 정리하는데 힘썼습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아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반부터는 헌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지난해보다는 빨리 1차 공부에 돌입하려 했습니다. 1월 중반까지는 PSAT 기출을 10회 정도 풀고, 헌법 복습을 했으며, 2차 공부 복습을 하루에 2~3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1월 후반부와 2월 중반까지 매일 1세트씩 학원 모의고사 20세트(1세트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120문제를 의미합니다)를 풀고 리뷰했으며, 헌법 복습도 계속 했습니다.

3월에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1차에 합격한 후에는 처음 겪는 3순환 시기에 두려움도 있었으나,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하고 '최대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시험에 어떤 주제가 나오면 이런 내용을 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습니다. 입법고시 2차 시험은 5월이었는데 아직 정치학과 정보체계론은 3순환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상태여서 부담감이 컸고 공부시간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행정학 3순환 강의 기간에 입법고시 2차 시험 스케줄에 맞추고자 정치학과 정

보체계론도 함께 공부했던 것이 최종적으로 행정고시 합격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Ⅲ. 제1차시험 과목별 공부방법

1. 헌법

일단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되지만 많은 강사들께서 60점 수준으로 맞춰 공부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80점 수준으로는 공부를 해놓아야 넉넉히, 그리고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헌법 공부에는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합니다. 저는 김유향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뒤, 그 내용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복습할 때에는 노트에 목차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놓아 이후 빠르게 복습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노트에 따로 정리한 이유는 교재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여 빠르게 복습하는 데는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의 수강 후 복습을 12월 중반~1월초까지 마친 후에는 2회독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리한 노트와 교재를 활용하여 내용을 최대한 상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2월 중반 즈음에는 김유향 선생님 모의고사 10회분을 풀고, 해답지에 오답노트 식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 시험 전날에도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2. PSAT 총론 및 언어논리

PSAT 세 과목은 주어진 시간 내 '120문제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골라' '정확히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는 PSAT을 풀 때, 다음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즉, 풀지 못하는 문제는 넘어가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 매번 달랐지만 언어논리는 약 1~2문제, 자료해석과 상황판단은 약 4~5문제 정도 시간 내 못 풀었던 것 같습니다. 여차피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몇 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취약한 유형, 함정이 많은 유형, 난이도가 높아 정답률이 낮은 유형 등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피해야 할 문제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푸는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풀었던 문제를 철저히 리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실수 때문에 틀렸는지, 무엇을 고려하지 못했는지 등등 각 문제에서 자신이 틀린 이유를 분석하고,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저는 정답률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언어논리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저는 특히 논리와 관련하여 2017년 5월에 강의를 들었는데, 그 때 한 번 들어놓고 정리해놓은 것이 그 후 논리문제를 푸는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 12월에도 언어논리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이 때 강사분이 행정고시의 각 기출 지문을 1분 내외로 읽고 중심내용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저는 언어논리를 풀 때 지문이 잘 읽히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의식적으로 훈련해보니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저의 전략과목으로 점수를 크게 올렸다고 생각이 들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7월에 자료해석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정리를 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도록 연습했습니다. 이론정리 후에는 8~10월에 매일 행정고시 또는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하루 20문제씩 할당하여 풀면서 제가 배웠던 이론과 훈련을 각 문제를 푸는데 적용해보았습니다. 40분 시간을 재어 풀 수 있는 문제(18문제 내외였음)를 풀고자 하고, 이후 모든 문제에 대해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40분 동안 처음 풀 때는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답이 나오면 넘어갔으나, 리뷰 할 때에는 모든 문제와 선지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 때는 각 문제를 푸는 시간을 핸드폰 스톱워치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를 파악하고 왜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일단 넘어가야 할 문제인지 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리뷰 할 때 선지를 보지 않은 채 자료만 먼저 보고, 가능한 질문이 무엇인지 출제자의 시각에서 예측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저에게는 자료해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자료해석 문제를 풀 때 저의 행동을 구조화시켰습니다. 즉, "(1)문제를 보고 묻는 게 무엇인지 체크 한 뒤, (2)제목을 보아 키워드를 파악한 후, (3)자료(표나 그래프)의 단위를 체크한다."등으로 구체적으로 제 행동을 구조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PSAT에는 자신이 없는 편이었기에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는 "쉬운 문제를 정확히 푼다."는 마음을 매번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

기 몇 분 전에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실수를 유형화하여, 자주 실수하는 것을 파악해보았고, "묻는 것에 답한다."는 마음가짐 역시 매번 문제를 풀기 전에 상기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해석은 모의고사에서 매번 상위 10% 정도는 유지를 하였고, 시험에서도 82.5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철저히 준비한 결과 큰 성취감을 느낀 과목이었습니다.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의 경우, "풀 수 있는 문제를 푼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황판단은 1차 시험에서 매년 80점이 나왔고 상황판단 영역의 점수를 올리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딱히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부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상황판단은 글, 법조문, 계산형, 퀴즈 등 유형별 접근을 잘 해야 합니다. 각 유형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위주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황판단은 조건이나 단서를 하나라도 고려하지 못하면 틀릴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자신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파악해서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실수를 떠올리며 주의해 문제를 푼다면 정답률을 높이는 데 도움 될 것입니다.

IV. 제2차시험 과목별 공부법

1. 총론

일단 행정고시는 과목 수도 많고 과목별 공부양도 정말 많기 때문에, 공부한 뒤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스트레

스를 덜 받고 마음이 편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시험에 나오면 쓸 수 있도록 내용을 철저히 정리해놓고 계속 복습함으로써 시험 전달에 빠르게 보고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버리는 부분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제든 나올 수 있으니 준비하되, 불의타는 모든 사람이 잘 못쓰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잘 쓸 수 있게 대비해야 됩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논리가 중요합니다. 즉, 문제에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학설, 판례, 검토, 사안에서의 적용의 과정을 거쳐 결론으로 도달할 때까지의 일련의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학설과 판례를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암기를 할 때는 키워드를 꼭 포함하여, 그리고 특히 판례의 중요한 문구는 그대로 외워서 답안에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문도 중요한 부분은 꼭 답안에 적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암기를 하는데 힘썼습니다. 핸드북에 최대한 보기 쉽게 추가해서 정리해 놓고, 추가적으로 제가 정리가 안 된 쟁점부터 쟁점별로 A4 한두 장 분량으로 압축해서 정리하고, 또 포스트잇에 더욱 압축해 정리해 놓았다가 틈틈이 이동시간을 활용하여 보면서 최대한 암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암기도 중요하지만, 암기에 앞서서 진행되어야 할 것은 이해입니다. 각 개념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학설이 나왔는지, 판례는 어떠한 것을 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지 역시 정확하고 충분하게 이해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암기 역시

효과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버리는 것은 없어야 하므로, 3순환 때 제가 처음 접한 최신판례들은 더 신경 써서 준비해두었습니다.

3. 경제학

경제학은 답을 정확히 맞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론 공부를 한 뒤에는 문제풀이가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다양하게 접해보아야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기출문제와 함께 스텝 1,2,3이나 연습책을 일반적으로 풀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풀이를 먼저 보지 않고,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못 푼 문제나 틀린 문제를 보기 좋게 정리하면서 시험 전에 보고 들어간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순환 모의고사 등 실제로 경제학 답안을 서술하실 때에는 글, 수식, 그림이 균형을 이루도록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에는 국제경제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3순환 때 국제경제학을 본격 준비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국제경제학 2순환 강의를 들었지만 강의 듣고 복습 1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고, 따라서 다른 강의 3순환을 들을 때에도 시간 될 때마다 국제경제학 이론과 문제를 복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역시도 저의 시행착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국제경제학도 버리지 않고 모두 공부하려고 한 결과 실제 시험에서 올바른 답을 도출해냈지만, 3순환 때 국제경제학 이론과 문제들을 거의 처음 접하면서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따라서 이

런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은 분들은 3순환 전에 미리 시간되실 때 국제경제학 이론과 문제를 공부해두라고 추천 드립니다.

4. 행정학

행정학은 박경호 선생님의 강의를 주로 들었습니다. 2017년 예비와 1순환에서 각각 행정학 총론과 각론을 배우면서 이를 노트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론을 한 번 더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2018년 10월에는 당해 3순환을 수강하며 노트정리를 한 번 더 했어요. 이 노트정리에는 단순히 강사분의 필기를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조화하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키워드를 잘 보이게 표시하고, '어떠한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꼼꼼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과목 강의를 들을 때에도 이렇게 제가 정리한 행정학 노트를 틈틈이 30분정도나 이동 시간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더 읽고 눈에 익히고 암기하려 했습니다. 이 노트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 3순환 기간에는 추가된 자료도 정리해놓고 중요한 주제 위주로 더욱 압축해서 한 번 더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건 특히 시험 전날에 빠르게 복습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학 답안을 서술할 때에는, 문제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학 답안에는 키워드를 잘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키워드를 목차에 포함시키거나 눈에 띄게 적는 방법 등을 고민해보시고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에 구체성이 수반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를 위해 수업에서 배우는 사례 정리를 해놓고 적절히 활용

하는 것이 답안의 구체화에 크게 도움될 거라 봅니다.

5. 정치학

정치학은 가장 범위가 광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버리지 않고, 각 주제를 개념이라도 확실하게 알도록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예를 들어 2019년 시험에 조합주의가 나왔는데, 저는 확실히 준비해놓지 못한 주제여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주제를 마주칠 가능성을 줄이려면, 광범위한 과목임을 인지하시고 폭넓게 대비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정치학 답안을 서술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쓰셔야 합니다. 특히 두괄식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그리고 첫 문장에 자신의 주장을 쓰시고, 그 다음 문장으로 부연설명을 하실 때에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논리적일지 고민해보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하겠지만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정치학은 특히 뒷받침할 이론과 사례가 다다익선일 듯합니다. 이를 위해 강의를 들으시거나 책을 보실 때에 체크만 해두시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답안에 활용할 부분을 따로 정리해놓고 암기해서 시험 전에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정보체계론

정보체계론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부담은 확실히 적으나, 그래도 3순환 시기에 2차 시험 몇 주 전부터만 준비하기에는 벅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8년 10월쯤에 1순환 강의를 듣고 이론 정리를 어느 정도 해두었습

니다. 정보체계론은 저에게는 행정학의 각론 느낌이었어요. 즉 행정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하고 답안을 작성하시되, 각종 기술이나 정책 용어를 정확하게 외우시는데 좀 더 힘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체계론을 공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계획서도 강의자료로 제공되어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실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예를 들면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공부해서 답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부를 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업무계획을 보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후에 면접스터디를 준비하실 때도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V. 수험생활

1. 체력 및 정신관리

거의 매일을 책상 의자에 앉아 있기에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해두시길 바랄게요. 또한 정신적으로도 시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지치실 수 있어요. 먼저, 체력적으로 저는 평소에 몸에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제때 챙겨먹는 습관을 가지고자 했어요. 저는 배가 너무 부르면 더부룩해서 답답하고 배가 고플 때에도 집중이 어렵더라고요. 또한 홍삼, 비타민 등을 챙겨서 먹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여러 시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맞는 방식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각자만의 해소 방법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1차 시험에 안됐을 때 스트레스도 받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를 회복하는 방법은 내년 시험에 1차, 2차, 3차 모두 합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1학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고시공부는 거의 하지 않는 대신, 7월부터 본격적으로 1차부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고시공부를 하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에 가끔씩 친한 친구들과 밥을 먹고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그 계획에 맞춰 생활해서, 많은 친구들을 길게 못 보는 만큼 한 번 보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응원도 많이 받은 게 큰 힘이 됐어요.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체력 관리와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찾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시간관리

수험기간을 단축하려면 시간관리에 힘쓰시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학교 고시반에서만 거의 공부했는데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순환 기간 3개월 동안 학교 근처 하숙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40~50분 거리를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했습니다. 이때의 이동시간은 버스에서 하루에 공부한 걸 조금이라도 보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고시공부를 하면서 실제 공부시간을 스톱워치로 체크해왔는데 보통 10시간은 넘었던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기록되는 공부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의 밀도라고 봅니다. 즉, 공부하는 시간이 남들보다 많지 않더라도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 충

분히 확보된다면 합격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처음 1년은 공부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히 쉬는 느낌도 안 들어서 그 다음 해에는 일요일을 활용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는 일요일에도 오후 1시정도에는 나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공부의 흐름도 유지하고, 휴일에도 공부했다는 뿌듯함으로 이어져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3. 스터디

스터디는 사람별로 선호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고시반에 들어가기 전에는 공부 패턴을 잡기 위해 학교 도서관에서 출퇴책 스터디를 했는데 공부 습관을 들이는 데 좋았습니다. 답안스터디의 경우 고시반에서 기출문제나 3순환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매일 50점씩 쓰고 돌려보기도 했어요. 저에게는 스터디 활용은 고시 공부 초반에 더욱 도움 되었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고

서로 첨삭해 주는 것이 시간적으로 조금 부담 되어서 아는 합격생 분께 첨삭을 받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로지 혼자서만 답안을 작성해보는 것보다는 학원이나 스터디 또는 합격생 분께 도움을 받아 첨삭 받는 방식을 추천 드립니다.

VI. 나가며

저 역시도 여러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많이 참고하고 동기부여도 받았습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행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나는 합격한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합격의 꿈을 실현하여 공직에서 선후배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고시 공부를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랑하는 부모님과 언니, 응원해주고 합격소식에 함께 기뻐해주었던 친구들과 친척 분들, 그리고 고시라는 힘든 길을 옆에서 함께해준 고시반 선후배들과 면접스터디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